■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35-362.
http://doi.org/10.17948/kcs.2019..84.335

영재(泠齋) 유득공(柳得恭)의 해양(해양국가)에 대한 인식 연구*

임명걸(任明杰)**

목 차

1. 서론
2. 유득공의 생애와 저서
3. 영재의 해양 및 해양국가 인식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영재(泠齋) 유득공(1748-1807)의 해양・해외에 대한 인식을 통해 당시 조선지식인의 해양 및 해양국가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유득공은 청나라의 발전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이용후생을 이루자는 북학사상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해양과 해외에까지 그 관심의 폭을 넓혔다. 유득공의 해양 및 해양국가에 대한 인식은 그의 연행록 『熱河紀行詩注』(1790)와 『燕臺再遊錄』(1801) 외에 문집 『고운당필기』, 『영재집』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즉 일본, 유구는 물론 서양의 영국과 네덜란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유득공은 이들 아시아와 서양의 해양국가들에 대해 지리, 풍속,

* 本文系国家社科基金一般項目"清代朝鮮北學派"燕行錄"與對清認識研究(批准号：17BZW111)"的阶段性成果.
** 중국해양대 한국어과 부교수.

물산은 물론 학예의 수준과 학문적 경향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물론 서양 해양국가에 대해서는 정보와 언어의 한계로 인해 이해에 많은 제약성을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보력을 동원해 그들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한 자취가 글을 통해 역력히 나타난다. 특히 서양의 견고한 선박과 무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 등은 유득공이 이때 이미 서양 해양세력이 동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자국 즉 조선 주변의 島嶼와 연해 등에도 주목함으로써 근대적 해양인식을 보여주는 기록들도 보인다.

주제어: 유득공, 북학파, 연행록, 해양인식.

1. 서론

영재(泠齋) 유득공(1748-1807)은 18세기 북학파 지식인의 일원이며 중국을 세 차례나 다녀온 적이 있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된 연행록『열하기행시주』(1790)와『연대재유록』(1801)을 남겼고 이 외에『고운당필기』,『영재집』을 비롯한 문집에 중국과 관련된 기록들을 많이 남겼다. 이 기록들에는 해외에 대한 유득공의 지적 관심이 돋보이는 내용들도 많은데, 일본과 유구는 물론, 서양국가인 영국과 네덜란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국 즉 조선 주변의 島嶼와 연해 등에 주목함으로써 근대적 해양인식을 보여주는 기록들도 보인다. 본고는 유득공의 해양・해외에 대한 기록을 통해 당시 조선 지식인의 해양 및 해양국가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영재 유득공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이가원[1]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주목을 요하는 점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유득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일반 연구논문은 물론이고 박사학위논문까지 집필되고 있다는 것은 영재 유득공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 지평을 획득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득공의 생애에 대한 연구[2]는 물론이고 그의 시세계[3], 역사의식[4], 연행록[5], 세계

1) 이가원,「朝・淸의 문학적 교환—주로 유득공과 청사와의 관계」,『한국한문학연구』제5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1, 86-112면.
2) 김영진,「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연보」,『대동한문학』제27집, 대동한문학회, 2007, 34-56면.

인식[6], 심지어 금석학[7], 민속학[8]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밖에 조선 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과 대외사상에 대한 연구들[9]도 있어 본 연구에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장종미의 석사학위 논문 「영재 유득공의 세계인식 연구」[10]에서는 유득공이 당시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와 한자문화권 밖의 나라, 그리고 서양 국가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경세적인 시각으로 중상주의적 면모에 관심을 갖고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달리 연구의 초점을 유득공의 해양 및 해양국가에 대한 인식에 맞춰 당시 조선지식인의 해양인식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봄으로써 당시 서학동점의 분위기 속에서 18세기 조선지식인들의 현실 상황에 대한 고민과 대응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득공의 생애와 저서

유득공(1748-1807)의 자는 혜풍(惠風)·혜보(惠甫), 호는 영재(泠齋)·영암(泠菴)·가상루(歌商樓)·고운당(古芸堂)·고운거사(古芸居士)·은휘당(恩暉堂)

3) 송준호, 「유득공의 시문학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김윤조, 「영재 유득공 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5; 朴雪梅, 「柳得恭文学的文化批判」, 중국 연변대 박사학위논문, 2013.
4) 송기호, 「유득공과 발해고」, 『발해고』, 홍익출판사, 2000.
5) 박현규, 「중국학자가 논평한 조선 유득공의 「난양록」과 「연대재유록」」, 『한중인문학집구』 제6집, 한중인문과학연구회, 2001; 김용태, 「1790년 유득공이 만난 동아시아—〈열하기행시주〉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권순철, 「영재 유득공의 연행과 문물교류」,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1; 졸고, 「18세기 북학파 연행록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연대재유록」에 나타난 유득공의 중국인식 연구—「열하기행시주」와의 비교를 통해」, 『새국어교육』 제104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6) 장종미, 「영재 유득공의 세계인식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17.
7) 박철상, 「조선 금석학사에서 유득공의 위상」, 『대동한문학』 제26집, 대동한문학회, 2007.
8) 나경수, 「영재 유득공 경도잡지의 민속학적 가치」, 『대동한문학』 제27집, 대동한문학회, 2007.
9)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유근호, 『조선조 대외사상의 흐름』, 성신여대 출판부, 2004; 원재연, 「조선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오상학,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2011.
10) 각주 8) 참조.

등 다양하다. 1748년 음력 11월 5일 부친인 유춘과 모친인 남양 홍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유득공의 家系를 보면 그의 증조부 柳三益은 서자 출신이다. 이리하여 유득공 역시 서얼이라는 굴레를 쓰게 되었다[11].

유득공은 20세 전후로 숙부 유금의 영향을 받아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이서구 등 북학파 인사들과 교유를 시작하여 나중에 '백탑동인'이라는 시동인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23세경, 이서구와 元重擧가 1763년 일본 통신사행에 참가하여 적은 일기와 일본인들의 증별시 67수를 뽑아 「日東詩選」을 편찬하였는데 유득공이 서문을 썼다. 그 후로 「續白虎通」(不傳 24세)·「鶉鴿經」·「東硯譜」(不傳)·『東詩盟』·『西京雜絶』(15수)·『松京雜絶』(9수)·『白塔淸緣集』(不傳)·『三韓詩紀』(27세)·『歌商樓集』을 편찬하였다.

29세(1776) 때 유득공의 숙부 유금이 부사 서호수의 幕客으로 중국에 사행을 갈 때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4인의 시 각 100수를 엮은 『韓客巾衍集』을 청나라 문인들에게 소개하였다. 이듬해 초에 李調元과 潘庭筠의 품평과 서문을 받게 되면서 청나라에서 이름이 나게 되었다. 이듬해 유득공은 청나라 문인의 시 총 127수를 수록하여 『中洲十一家詩選』(1777)을 편찬하였다[12]. 31세(1778) 때 『二十一都懷古詩』(43수) 초고를 정리하여 謝恩陳奏使의 수행원으로 가는 박제가(정사 채제공을 수행), 이덕무(서장관 심염조를 수행)에게 보냈다. 이덕무는 『二十一都懷古詩』의 초고를 중국에 가져와 중국 문인들에게 소개하여 청나라의 潘庭均, 李調元, 祝德麟 등이 열람해서 유득공을 칭찬하였다. 반정균은 『二十一都懷古詩』에 대해서 '竹枝, 詠史, 宮詞 등 여러 體의 뛰어난 점을 겸한, 틀림없이 후세까지 전해질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13]. 이해 유득공은 처음으로 중국사행단(정사 李澈이 이끄는 심양 문안사절단, 서장관 南鶴聞의 수행원으로)을 따라 심양을 다녀왔다. 첫 번째 연행을 통해 그는 『挹婁旅筆』을 저술하였지만 현재 서문만 전해지고 있다.

---

11) 김영진, 「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年譜」, 『문헌과 해석』 제29호, 문헌과해석사, 2004, 215-246면.
12) 김영진, 앞의 글, 2007, 22면.
13) 유득공, 김윤조 옮김, 『(태학산문선 112) 누가 알아주랴』, 태학사, 2005, 335-336면. "題二十一都懷古詩, 是歲, 懋官次修入燕, 手抄一本, 寄潘香祖庶常. 及見潘書, 大加嗟賞, 以爲兼竹枝詠史宮詞諸體之勝, 必傳之作."

32세 때 검서관에 임명되어, 마침내 관료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유득공은 많은 고서에 접촉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유득공의 문학창작을 위해 기반이 되어주었다. 33세 때 『고운당필기』 저술을 시작하였다.[14] 두 번째 중국연행은 1790년에 부사 서호수(정사는 黃仁點, 서장관은 李百亨)의 종관으로 발탁되어 進賀使 겸 謝恩使 사절단에 참여하였다. 이번 사행은 건륭제의 80회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이었고, '연암그룹'의 핵심성원인 박제가와 이희경도 참여하였다. 또한 각국의 사절들이 운집한 성대한 만수절연회에서 각국의 사절들을 만났기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득공은 이번 여행을 통해 청조의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방면을 깊이 고찰하고 청조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득공이 이 특별하고 중요한 연행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성과물이 바로 『熱河紀行詩注』이다. 『열하기행시주』는 七言絶句 연작시의 형식을 취하고 총 49수의 칠언절구와 이 시편들에 대한 작자의 상세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각 절구의 제목들은 지명과 인물의 명칭을 차용하고 사행일정에 따라 배열하였다. 『열하기행시주』에는 청나라의 번영을 여실히 기록했을 뿐 아니라 청나라의 잠재적인 문제와 위기까지 날카롭게 포착하였다.

37세 때 『발해고』를 지었다. 이 책으로 인해 유득공은 역사가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15]. 그리고 39세 때는 『병세집』을 편찬하였다. 『병세집』은 중국, 일본, 안남, 유구 등 동아시아 4국의 91명의 시 총 277수를 수록하였다. 43세 이전에 『경도잡지』를 편찬하였다. 『경도잡지』는 한국 세시풍속에 관한 최초의 저작으로 역사와 문학, 민속학 등 여러 분야에 요긴한 자료로 널리 알려져 왔다[16]. 또한 이때 유득공의 일생에서 세 번째 중국 사행이자 마지막 연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기록으로 『燕臺再遊錄』(1801)을 남겼다.

---

14) 김윤조, 「고운당필기연구—제이본에 대한 검토」, 『대동한문학』 제27집, 대동한문학회, 2007, 375-408면.

15) 박인호, 「『발해고』에 나타난 유득공의 역사지리 인식」, 『韓國史學史學報』 제6집, 한국사학사학회, 2002, 37-39면.

16) 김윤조, 「경도잡지 해제(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V.0000.0000-20090716.AS_SA_478(2019.06.30 검색).

45세 때 『奎章全韻』의 완성을 기념하여 정조가 閣臣 및 검서관들에게 『文字策』을 지으라고 명함에 유득공은 『六書策』을 저술하였고, 51세 때 정조의 명으로 『海東農書』를 편찬하였는데 유득공은 『農器圖說』, 『穀名解』, 『增補山林經濟』 등에 관한 글을 지었다. 54세 때 유득공은 『선부군묘지』 및 『선비행장』을 편찬하였다.

유득공은 60세를 일기로 1807년 9월 1일에 세상을 떠나, 成海應이 은거하던 포천 香山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楊州 松山(지금의 의정부시 송산동)에 묻혔다. 이곳은 그의 부친이 묻힌 곳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영재 유득공은 비록 서출이라는 신분적 굴레를 쓰고 태어났으나 뛰어난 시적 재능과 학문으로 조선에서는 물론이고 이름이 멀리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조선 사가시인의 일원이며 북학파 핵심인물인 영재는 18세기 북학파 인물들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인 통정대부(正三品 1796년)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18세기 사상사에 한 획을 긋는 북학파 동인들과의 밀접한 교유는 그로 하여금 중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난한 조선의 현실을 하루빨리 북학을 통해서 경장을 이루자는 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세 차례의 중국체험을 통해 평소에 가졌던 지식과 정보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만난 중국의 뛰어난 문인들과 깊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특히 1790년 만수절에 열하로 들어간 유득공은 조공을 바치러 온 중국 주변의 나라와 지역의 사신단 성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온 元重擧와도 밀접한 사이어서 그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일본과 교류를 하는 서양 국가 네덜란드와 영국에 대한 정보도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유득공은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그 주변국들, 그리고 해양국가인 일본과 서양 국가인 네덜란드와 영국을 접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신의 저서에 남긴 것이다. 그럼 아래에 영재의 연행록 『열하기행시주』와 『연대재유록』, 그리고 그의 문집인 『고운당필기』를 중심으로 유득공의 해양 및 해양국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3. 영재의 해양 및 해양국가 인식

1) 아세아 해양국가 일본과 유구에 대한 인식

일본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국가로서 예로부터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많은 교류가 있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일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일본 해양세력은 중국 대륙세력과 서로 대치되는 두 개의 세력 판도를 이루어 세력충돌이 여러 번 일어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인 원인으로 인해 둘 사이에서 본의 아니게 그 충돌에 휘말려야 했다. 근대 이전의 조선 지식인의 일본 인식은 전통적인 화이관에서 출발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본에 대한 조선지식인의 인식에는 점차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통신사를 비롯한 조선의 식자층은 일본을 직접 체험하고 일본사람과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일본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실학자들이 한국 역사무대에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일본 인식도 점차 변화되었다[17]. 유득공을 포함한 북학파 지식인들이 일본에 직접 다녀오거나 일본사람과 직접 교류한 사실은 지금까지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본을 직접 다녀온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사료(『화한삼대도회(和漢三才圖繪)』)를 통해서 충분히 간접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었다. 북학파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원중거와 성대중 등이 바로 일본에 직접 다녀온 인물들이었다. 영재뿐만 아니라 북학파 핵심 성원인 이덕무, 박제가, 이희경의 기록에도 일본의 풍속과 선진적인 문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학파 지식인들은 일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학파의 "북학" 내용에 단순히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선진문물을 수용하자는 개방적인 시각이 포함되어있음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영재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원중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원중거는 통신사 부사의 서기로 1763-1764년까지 거의 일 년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일

17) 임형택, 「실학자들의 일본관과 실학」,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비, 2000, 181-197면.

본의 지식인들과 많은 교류를 했기에 누구보다도 일본의 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런 일본 체험을 바탕으로 『해항일기』(일명 『乘槎錄』으로 불리기도함), 그리고 종합적인 일본국지로서의 『和國志』(和國輿地記)를 기록했던 것이다. 李書九는 원중거의 『해항일기』에서 67수의 시를 뽑아 『日東詩選』(蜻蛉國詩選)을 지었는데 영재가 여기에 서문 「日東詩選序」를 지어주었다. 또 청장관 이덕무도 일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蜻蛉國志』를 저술하여 일본에 관한 종합적인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영재 또한 이덕무와 함께 북학파의 핵심인물이며 사가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 지우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재는 이덕무의 『蜻蛉國志』에 序文을 써 주었다. 이는 모두 18세기 실학자들이 일본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럼 아래 「日東詩選序」와 「蜻蛉國志序」를 통해 유득공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보도록 하자.

우선 「日東詩選序」의 기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무관이 저술한 책에 『청령국지(蜻蛉國志)』 두 권이 있다. 청령국이란 일본의 다른 이름인데 그 나라의 생김새가 잠자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일본은 후한(後漢) 때부터 대방군(帶方郡)에 소속되었고, 진수(陳壽)가 처음으로 열전에 넣었다. 그러나 바다 멀리 있어서 중국의 정벌이 이르지 않는 곳이므로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다. 무관은 『청령국지』를 엮으면서 그 나라의 역사서를 그대로 따라, 거짓 황제의 연대와 관백(關白)의 시말에서 산천과 길의 이수, 풍속과 민요, 물자의 생산, 그리고 서남쪽 여러 오랑캐들과의 왕래와 교역까지 사실에 의거하여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참고하면 일본의 사정을 잘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어찌 패관들의 잡기로만 지목할 수 있겠는가?
>
> 나는 마음속으로 참 괴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사대부라는 사람들은 바다 방비를 맡아 표류 선박이 떠밀려오면 그 돛을 바라보고 그들의 옷차림을 보고 말을 듣고 용모를 살펴보고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모르고 한번 신문을 하고는 법률 조문을 살펴 처리하고 만다. 왜 이 책을 읽어보고 해외 여러 나라의 사정을 알아내지 않는단 말인가?[18]

---

18) 柳得恭, 「蜻蛉國志序」, 『泠齋集』 권7, 한국문집총간 260, 117면. "(…) 懋官所著書有『蜻蛉國志』二卷. 蜻蛉國志者, 日本別稱, 其國地形有似蜻蛉故云. 日本自後漢時屬於帶方, 陳壽始立傳.然處乎重溟之外, 中國征討之所不及, 故莫得其要領. 懋官撰此志, 因其國史, 僞皇年代、關白始末, 以至山川、道里、風謠、物産, 西南諸蕃往返交易, 莫不據實而書. 考覈精詳, 無風聞鑿空之語. 爲邦者資之, 足以善隣, 出疆者資之, 足以覘, 惡可以稗官雜記目之哉. 竊恠夫今之士大夫出典海防, 漂船一到, 望其帆見其衣聞其語審其貌, 而不知爲何國之人, 問

위의 인용문은 이덕무의 『청령국지(蜻蛉國志)』에 대한 영재의 종합적 분석과 그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청령국지(蜻蛉國志)』에서 이덕무는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일본의 世系, 역사, 풍속, 경제, 대외무역의 현황 등 정보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상세하게 검토한 유득공은 이 책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위정자들에게 이 책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治國의 참고서이며 이웃나라와 잘 사귈 수 있는 外交의 참고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조선의 국가안보와 항상 관련이 있는 일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평가를 내렸다. 특히 마지막 단락은 영재 개인의 태도이자 그의 대외인식을 직접 드러내고 있어 흥미롭다. 즉 표류해 오는 외국 선박을 보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당시 조선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타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영재의 태도는 이덕무와 함께 매우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화이론에 입각한 일본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확연히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영재의 관심은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학예 등 보다 심층적인 내용에 더 깊이 주목하고 있다. 아래 「日東詩選序」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 그 나라에서 저술된 『화한삼대도회(和漢三才圖繪)』라는 책을 살펴보았더니 詩選, 禮樂, 戰陣의 방법에서 불교, 사도(邪道), 장기, 바둑 따위 놀이까지 우리나라에서 얻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생각건대 일본은 부유하고 그 풍속이 재빠르며, 간사한 재주, 교묘한 기술이 뛰어나지만 유독 한시(漢詩)를 잘 짓지를 못한다.
>
> 계미년(1763년)에 전임 장흥고봉사(長興庫奉事) 玄川 元重擧가 사신의 일행으로 선발되었다. (…) 서기의 임무는 오로지 시를 주고받는 것을 관장하는데, 예물을 가지고 뵈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으레 시 한 수를 지어주는 것이어서, 붓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곧바로 써 내려가 마치 미리 구상해 놓은 것처럼 해야만 비로소 능하다고들 한다. 간단히 장편(長篇), 험운(險韻)을 가지고 몰려와 곤란하게 만들고 이리저리 뒤엉키고 섞여 질서도 없어서 거의 감당해 낼 수가 없을 지경이었으

情一差, 下理勘律. 何不取此記而讀之, 以知海外諸國之情狀乎?" 인용문의 번역문은 유득공, 앞의 책, 2005, 238-239면 참고.

나 바삐 바삐 급한 대로 지어준 작품들은 곧장 간행되어 온 나라에 퍼졌고, 한마디 칭찬의 말을 얻어들은 사람들은 드디어 온 나라에서 이름이 드러난다고 한다.

현천옹은 천성이 독후하고 정자주자의 학문을 즐겨 이야기하였으므로 저들이 더욱 존중하여 반드시 노선생이라 일컬었다. 일본에서 문장에 능한 사람은 대개 의관이나 승려들이었는데, 함리(合離)·정잠(井潛)·나파사증(那波斯曾)·부야의윤(富野義胤)·강전씨(岡田氏) 형제가 더욱 뛰어났다. 이들은 모두 현천과 깊이 사귀었다. 현천이 귀국한 뒤에 강거사가 그의 『해항일기』와 증별시 69수를 뽑아 『日東詩選』이라 명명하고 나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시가 뛰어난 것은 삼당에 비길만했고, 훌륭하지 못한 것도 王·李와 맞먹을 만하여 오랑캐들이 조잡한 소리를 일신시켰으므로 칭찬할 점이 많았다.

상고해 보니 일본이 처음 중국과 교통한 것은 후한 建武 때였는데 뒤에 "해 뜨는 곳의 천자"라 일컬으니 수나라 황제가 불쾌하였다. 晁卿과 裔然은 일본사람으로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가장 저명하였지만 모두 시문은 전하는 것이 없고 명나라 초에 객리마합(喀哩嘛哈)이라는 사람이 고황제의 시에 차운하여 스스로 자기를 중국에 비기고 사람들은 공고 때와 같다 뻐기니 언사가 매우 불손했다. 만력 연간에 침략을 일삼더니 임진년의 전쟁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내쫓기고 거절당해서 문물을 유통하지 못하였으므로 문화가 캄캄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주변나라들이 시를 편찬하는 사람들을 일본을 안남·점성의 아래에 두게 되었고 끝내 스스로 떨칠 수가 없었다.

요즘 들으니 나가사키에서 배가 항주, 절강으로 왕래하고 나라 사람들도 점점 서적을 간직할 줄 알며 글씨와 그림을 배워 거의 볼만하게 되어간다 한다. 삼대 때는 나라가 작아 직접 천자를 뵙지 못하는 나라들이 큰 나라에 붙는 것을 부용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이 책이 넓게 멀리까지 유포되어 민풍을 채집하는 사람이 취하는 바 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 군자들이 감이 사양하지 못할 임무이다.[19]

---

19) 柳得恭, 「日東詩選序」, 『泠齋集』 권7, 한국문집총간 260, 111면. "日本在東海中, 去中國萬里, 最近於我. 取攷其國所著「和漢三才圖會書」, 則詩書、體樂、戰陳之法, 以至桑門、外道、博奕、戲具, 莫不自我得之. 顧其國富風俗儇利, 多淫伎巧匠, 而獨不能工詩. (…) 玄川翁雅篤厚, 喜談程朱之學, 彼中益重之, 必稱老先生, 其能文之士, 率多醫官釋流, 而合離井潛、那波斯曾、富野義胤、岡田氏兄弟, 尤爲傑然, 皆與之深相交, 及其歸後, 薑山居士鈔其「海航日記」中贈別詩六十七首, 名曰「日東詩選」. 屬余爲之序. 其詩高者摸擬三唐, 下者翱翔王·李, 一洗侏之音, 有足多者. 按日本之始通中國, 在後漢建武中, 而後稱日出處天子, 隨帝不悅. 晁卿、裔然最著於唐宋, 而詩文並無傳. 皇明初有喀哩嘛哈者, 詩對高皇帝, 自詡以國比中原人同上古, 辭甚不遜. 萬曆間侵寇爲業, 遂有壬辰之役, 以此之故, 輒爲中國所擯絶不與通, 文物因之晼晚. 編次屬國詩者, 置之安南占城之下, 訖不能自奮. 比聞長碕海舶往來杭浙, 國人稍解藏書, 學爲書畫, 庶幾彬彬焉. 三代之時, 國小不能自達于上國者, 附于大國曰'附庸', 今以此集流布廣遠, 爲採風者所取, 則我東諸君子之所不敢辭." 인용문의 번역문은 유득공, 앞의 책, 2005, 232-236면 참고.

영재의 이 긴 서문은 일본의 학문발전사와 현재의 학문적 수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일본의 문명이 대부분 조선을 통해서 배워간 것이라는 역사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과거에는 한시 수준만은 조선보다 못하고 지어 안남과 점성의 수준보다 못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 원중거의 일본에서의 활약을 기록하면서 일본의 시문이 뛰어나 조선의 한시사가의 일원인 강산 이서구가 일본의 시 67수를 뽑아 책으로 묶을 정도가 되었고 자신이 살펴보건대 훌륭한 시가 많아 "뛰어난 것은 삼당에 비길 만했고, 훌륭하지 못한 것도 王・李와 맞먹을 만하다"라고 높이 평가를 했다. 그 다음은 일본과 중국의 교류사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문화가 낙후했던 과거를 다시 밝힌다. 이는 영재가 일본과 중국의 교류사에 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 단락에는 당시의 일본은 중국 항주와 절강으로 왕래하면서 서적을 적극적으로 수입하여 학예가 날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청장관 이덕무가 자신의 연행기록인『입연기』에서 강남의 출판을 거론하면서 모든 책이 중국의 강남에서 난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중국의 강남지역은 당시 청나라 출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많은 조선의 연행사단은 연경에 이르러 유리창에서 서책을 구입하지만 실은 대부분 중국의 강남지역에서 연경에까지 가져온 것을 수입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이미 출판의 원산지 중국 강남에서 직접 구입하였다. 따라서 영재는 "일본 사람들은 지혜가 날로 트여서 더 이상 예전의 왜가 아니니 대개 나가사키의 배들이 중국 강남의 서적을 수입하기 때문이다.[20]"라고 직접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일본 학예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고문사학으로 유명한 오규소라이(1666-1728)에 관한 기록에서도 잘 나타난다.

> 일본에서 물쌍백(物雙柏)이라는 자가 있는데 자는 무경(茂卿)이고 호는 조래(徂徠), 또는 훤원(譞園)이라고 하여 육오주(陸奧州) 사람이다. 그는 나가사키 상선에서 王元美(王世貞)와 李于鱗(李攀龍)의 저서를 얻어 읽어 즐겨 그 두 사람을 眞

20) 柳得恭,「我書傳於倭」,『古芸堂筆記』권5, 이우성 편, 栖碧外史海外蒐佚本 10, 아세아문화사, 1986, 125면. "倭子慧窮日開, 非復舊時之倭, 蓋緣長崎海舶, 委輸江南書籍故也." 인용문의 번역문은 유득공, 앞의 책, 2005, 45면 참고.

> 儒라고 생각하였는데 왕・이의 학문을 비판하여 헐뜯는 것에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66주의 문인들이 너도나도 그에 뒤따라 하여 그를 해동부자라고 하였는데 참으로 가소 할 만하다.[21]

비록 비판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일본의 학문적 경향과 대표적 인물까지 파악하고 그 학문적 경향이 이루어진 과정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영재가 일본의 학예에 항상 주의 깊게 관조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영재는 한 번도 일본에 간 적이 없었지만 일본의 서적과 일본에 갔던 주변 지식인들, 그리고 북학파 성원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일반 지식을 넘어 그들의 문학수준과 학문적 경향, 대표적인 일본 지식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날로 발전되는 원인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해양국가 유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유구는 현재 일본에 속해 오키나와로 불리지만 과거에는 역시 한자문명권의 한 성원으로 엄연히 독립된 하나의 해양국가였다. 강동엽[22]의 연구에 따르면 유구와 한국 사이에는 역사상 공식적인 접촉이 61회나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14세기에서 17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진 접촉이고 18세기에 와서는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다. 하지만 영재는 유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90년 처음 중국 연경으로의 연행 때, 열하에서 다른 나라 사절단 사람들과 언어장애를 극복해가면서 심지어 신체언어까지 동원하면서 많은 교류를 했던 사실이 『열하기행시주』에 잘 나타나 있지만 유독 유구에서 온 사신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영재가 그 연행에서 유구사신을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사신으로 온 유구사람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 교류를 하였던 것은 1801년의 마지막 연행 때이고, 이때

---

21) 柳得恭, 「倭語倭字」, 『古芸堂筆記』 권4, 이우성 편, 앞의 책, 377면. "彼中曾有物雙柏者, 字茂卿, 號徂徠, 又稱譲園, 陸奥州人. 得王・李[王元美、李于鱗]之文於长崎商舶, 讀之悅之, 以爲貞儒, 途唱王・李之學, 詆毁程・朱, 無所不至, 六十六州之士, 靡然縱之, 至稱篇海東夫子, 眞可笑也." 인용문의 번역문은 유득공, 앞의 책, 2005, 375-376면 참고.

22) 강동엽, 「중국의 문학과 인접국과의 교류 양상」, 『조선시대의 동아시아 문화와 문학』, 복스힐, 2006.

마침 중국사신단의 부사의 신분으로 유구를 다녀온 묵장 이조원과 만나 유구에 관해 상세한 필담을 주고받은 내용이 『연대재유록』에 기록되었다.

영재가 유구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음은 묵장과의 필담에서 보여준 일방적인 정보 입수가 아니라 정보의 상호교류라는 측면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영재가 유구에 대해 많은 선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며 조선에 있을 때 이미 유구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1790년 이전에 이덕무가 『蜻蛉國志』를 저술했을 때 서문을 영재가 써준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바로 『蜻蛉國志』에 「異國」 편으로 유구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덕무는 일본의 『화한삼재도』를 참고하여 유구에 관한 내용을 지리위치, 풍속, 특산물 등으로 나누어 개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영재로 하여금 유구에 대한 기본 상황을 파악하게 했던 것이다. 또한 『고운당필기』에 1792년에 사행으로 갔던 수역 홍명복(首譯 洪命福)의 별단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도 유구에 대한 영재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임자년(1792)에 연경에 갔던 首譯 洪命福이 별단에 '금년에는 琉球 安南 緬甸 세 나라가 조공을 하였는데 유구는 정사가 마계모(馬繼謨), 부사가 진천룡(陳天龍)이었고, 안남은 정사가 완문전(阮文典)이었으며 면전은 정사가 아찰각소(啞札覺蘇), 부사가 득만각(得滿覺)이었습니다. 유구의 貢物은 硫黃 1만 2천 6백 근, 紅銅, 3천 근, 白鋼錫 1천 근이었다. (…) 상원응제에서 유구와 안남의 정사와 부사는 각각 칠언율시 한 수씩을 지어 바쳤으나 면전 사신은 한자를 몰라서 지어 바치지 못했다.'23)

위 인용문이 바로 유구에 관한 별단 내용이다. 여기서 유구의 사신단의 정사가 마계모(馬繼謨), 부사가 진천룡(陳天龍)이었음과 그들의 조공물품을 밝히고 있다. 영재는 바로 이 두 사람이 이때 지은 시와 정순칙(程順則), 채문부(蔡文溥)가 쓴 시를 한 수씩 뽑아 자신의 『병세집』에 수록했던 것이다. 이는 영재가 유구에 대한 일반 상식은 물론이고 유구의 학예 수준과 대표문인들까

23) 柳得恭, 「琉球安南緬甸使」, 『古芸堂筆記』 권4, 이우성 편, 앞의 책, 229면. "壬子赴燕, 首譯洪命福別單云: '今季入貢, 琉球安南緬甸三國, 琉球正使馬繼謨, 副使陳天龍' (…) 上元應製, 琉球安南正副使, 各製進七律一一首. 緬甸使臣, 不解漢字, 不能製進."

지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묵장과의 필담을 보아도 유구에 직접 다녀온 묵장에 비해 유구에 대한 정보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재: "유구 국왕의 성은 상씨(尙氏)라는데, 새로 책봉 받은 왕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묵장: "상온(尙溫)이라 하더군요."[24]
(…)
영재: "그곳의 풍속과 의복은 어떠합디까?"
묵장: "왕과 관리만이 짚신을 신는 형편이고 평민들은 모두 맨발인데, 의장(衣章)을 따질 게 있겠소."
영재: "『주시강략(周詩講畧)』과 같은 대작(大作)이 많을 줄로 생각되는데 어떠하신지요?"
묵장: "이번 걸음에 시 300여 수를 지어서 한 책에 기록하게 한 것이 있고, 그 밖에 『유구역서(琉球譯書)』 상·하 두 권이 이미 탈고(脫藁)된 것이 있는데, 시록(詩錄)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소."
(…)
묵장은 또, "귀국이 일찍이 유구와 통상(通商)을 하다가 뒤에 틈이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떠하오?"
영재: "국초(國初)에는 그들이 와서 조공하다가 지금은 오지 않으나, 특별한 혐극(嫌隙)은 없소이다."
묵장: "궁벽하고 협소하여 가소롭지요."
영재: "그들이 왜놈에게 소속되어, 만력(萬曆) 연간에 평수길(平秀吉)이 그 국왕을 잡아 갔다는군요."
묵장: "왜놈에게 소속되었다는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이 심히 비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록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요."[25]

위 인용문은 바로 영재가 묵장과 나눈 필담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도 영재가 이미 유구의 왕족 성씨와 유구가 이미 일본에 소속된 상황임을 알고 있

24) 유득공, 『연대재유록』 四月 十五日. "問:'琉球國王姓尙, 新受封王名云何?' 答:'尙溫.'"
25) 유득공, 『연대재유록』 四月 十五日. "問'到彼風俗衣章如何?' 答:'王及官着草靸, 平民皆赤足, 衣章何論?' 問:'想多大作,如周詩講畧?' 答:'此行有詩三百餘首. 使錄一書外, 有琉球譯書上下二卷, 已脫藁, 詩錄尙未淸出.' (…) 墨莊曰:'貴邦曾與琉球通商, 後成隙, 今究如何?' 余曰:'國初, 伊來貢, 今不來, 別無嫌隙.' 墨莊曰:'僻小可笑.' 余曰'伊屬倭子, 萬曆中, 平秀吉挈他國王去.' 墨莊曰:'伊屬倭子, 此事, 其國人甚祕之, 故不便入紀矣.'"

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영재는 묵장에게 유구와 조선과의 교류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다.

> 묵장: "국서(國書)는 나라마다 한결같지 않은데, 유구의 국서는 일본 글자였소."
> 영재: "이것은 일본의 '이로하[以呂波]'인데, 중국 글자 20여 자를 가지고서 반자(半字)를 만들어 자모를 만들지 않았소?"
> 묵장: "지금 그 자모는 모두 47자로서 진(眞)도 있고 초(草)도 있지 않소?"
> 영재: "일본은 또 편가문(片假文)이 있는데 글을 알 수가 없소. 그런데 한자(漢字)의 곁에다 썼으니, 이는 그 구두(口讀)였소. 그들이 처음에는 글 지을 줄을 몰라서 음주(飮酒) 같은 것을 주음(酒飮)이라 하고, 작시(作詩)를 시작(詩作)이라 하였는데, 편가문(片假文)을 써서 구두를 정하여 사람을 가르친 연후에 차츰차츰 글을 하게 되었다오."[26]

위 글은 유구의 국서가 이미 일본문자로 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일본문자에 대한 지식정보에 관해서는 유구를 직접 체험한 묵장보다 유구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영재가 오히려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영재가 일찍부터 유구에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 정보를 접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번 연행에서 영재는 홍려시(鴻臚寺)에서 유구사신들을 직접 만나 교류를 했다. 이때 유구의 진공사(進貢使)의 정사는 향필현(向必顯), 부사는 원익(阮翼)이었고, 사은사(謝恩使)의 정사는 모국동(毛國棟), 부사는 정득공(鄭得功)이었다. 두 진공사단이 동시에 연경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때 영재는 이미 묵장으로부터 정득공(鄭得功)에 대해 그가 한어에 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정(鄭)이란 자는 키가 작고 정상(精詳)하며, 곧 네 번이나 중국을 들어왔다는 자이다. 그가 중국어에 능하므로 나는 그더러, "서호(西湖) 금산(金山)의 승경(勝景)을 보았는가?"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모두 보고말고요." 하기에, 나는 또,

---

26) 유득공, 『연대재유록』 四月 十五日. "墨莊曰:'國書, 各國不同, 琉球國書, 日本字也.' 余曰:'此日本以呂波也. 以中國二十餘字, 作半字爲字母.' 墨莊曰:'今其字母共四十七字, 有眞有草.' 余曰:'日本更有片假文, 不可曉, 書於漢字傍, 此其句讀也, 伊初不知作文, 如「飮酒」曰「酒飮」, 「作詩」曰「詩作」, 用片假文定句讀, 敎人, 然後, 稍稍能文矣.'"

"지은 시(詩)가 있는가?" 하자,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모릅니다. 지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 정(鄭)은 또 우리나라 말로 천지(天地), 일월(日月), 수목(數目)을 대략 알므로,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니, 바다에 표류된 사람에게 배웠다는 것이다. 정은 아무튼 구양(球陽)의 재자(才子)인 것 같다. 그 종인(從人)들은 검은색 관을 썼는데, 역시 중국어에 능한 자도 있었다. 내가 묻기를, "너희 사신은 관직이 무엇이냐?" 하였더니, 대답이, "금자대부(金紫大夫) 법사(法司)이지요." 하였다. 나는 또, "너는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물었더니, 여기저기 품속을 더듬어 작은 칼 하나를 꺼내어 보이는데 곧 접었다 폈다 하는 주머니칼로서, 우리나라 제품과 흡사하였다. 뒷날 오문(午門) 안에서 반상(頒賞)할 적에 또 보았는데, 모두 왜국의 반포의(班布衣)를 입었다. 그들 네 사신이 몸을 일으켜 공수(拱手)하고 섰다가, 정(鄭)이 앞에 나와서 '평안하냐.'고 묻기에, 나 역시 '평안하냐.' 고 물었다. 그는 또 나더러, "어느 날에 떠나십니까?" 묻기에 나는, "오늘로 길을 떠나오." 하고 대답하였다. (…)

동무(東廡) 아래에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기에 가서 보니, 내무부(內務府) 이속(吏屬)들이, 유구 사신의 상 받은 비단을 가져다가 포장을 끄르고 필마다 두서너 자씩을 끊어 내는 것이었다. 이윽고 들으니, "유구 사신이 예부(禮部)에 글을 올리어 말하기를, '비단이 필마다 짧고 끊어 낸 흔적이 있으며, 또 포장지에는 '홍(紅)' 자 표가 찍혔는데 청단(靑緞)이 들어 있고, '청' 자 표가 찍힌 데는 장단(醬緞)이 들었으니,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한다. 이는 대개 내무부 사람들이 바삐 잘라내고 아무렇게나 싸서 그렇게 된 것이니, 중국의 기강(紀綱)도 알 수 있으려니와, 이 일로써 글을 올린 유구도 역시 만(蠻)이라 이르겠다.[27]

위의 인용문은 묵장과 유구사신 정득공 등과의 직접 교류를 적은 것이다. 정득공은 중국을 네 번이나 다녀온 사람으로서 유득공은 정득공을 유구의 재자로 인정한다. 하지만 중국 강남의 훌륭한 명승을 보고 한시를 남기지 않음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의 사람들이 유구에 표

27) 유득공, 『연대재유록』 四月 十五日. "鄭也短小精詳, 卽四入中國者也, 能漢語. 余問:'見西湖金山之勝否?', 答:'都見過.' 問'有詩乎?' 搖首曰:'不會, 沒有.' 鄭也又能略知我國話, 天地日月數目, 問:'何以知之?' 答:'學於漂海人.' 似是球陽之才士也, 其從人則戴黑冠, 亦有能漢語者. 問:'爾使臣何官?' 答:'金紫大夫法司.' 問:'爾有甚東西?' 探懷中出刀示之, 卽指刀. 與我國之制恰相似. 後於午門內頒賞時, 又見之. 悉着倭班布衣, 四使臣起身拱手而立. 鄭也前問好, 余亦曰好. 又問:'余何日回去?' 余答'以今日起程.' 見東廡下, 有人擾擾, 就見之. 內務府吏屬, 將琉球使臣賞緞開包, 各疋截取其數三尺. 尋聞琉球使臣呈文禮部, 曰緞疋俱短, 有截痕, 又包紙紅標而靑緞, 靑標而醬緞, 未知何故云云. 此蓋內務府人, 忙截亂裹而然耳. 中國之紀綱可知, 而琉球之以此呈文, 亦可謂蠻矣."

류되어 간 정보도 확인하고 정씨를 비롯한 유구사람들도 조선의 언어를 알고 있음을 파악한다. 하지만 아래 하사품의 문제로 유구사신이 청나라 예부에 상소를 올려 옥신각신 다투는 것을 보고 아직은 야만을 떨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물론 여기서는 중국 측의 부패도 함께 꼬집어 쌍방 모두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영재는 유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일반적인 지리와 풍속, 특산물에 대해 요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예의 수준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국에 가서는 청국문인과 유구 사신들을 만나 직접 교류하면서 유구에 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2) 서양 해양국가 영국과 네덜란드에 대한 인식

영재의 해양국가에 대한 관심은 동아시아의 일본과 유구를 넘어 서양의 해양국가에까지 확장되었다. 근대 이전 조선의 경우 서양에 대한 관심은 주로 중국을 통해서 서양의 천문역법 등 자연과학지식과 선진문물과의 접촉에 집중되어있었다.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의 연행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런 점들이 잘 나타나있다. 하지만 영재의 경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서양에 대한 정보수입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의 정보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져 중국과 일본 양국으로부터 이루어진 인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의『고운당필기』중,「英咭唎國」,「紅毛番」,「番人鳥槍」,「阿蘭陀」,「西洋番人」등 기록들이 바로 서양의 영국과 네덜란드 두 해양국에 관한 기록들이다.

우선 영길리국(영국)에 대한 기록을 보도록 하자.

> 계축년(1793)에 연경에 갔을 때 뇌자관의 보고서에 "영길리국은 광동성 남쪽 해외에 있다. 건륭 28년에 조공을 바쳤고, 금년에 또 조공을 바쳤다. 두목인 말알야니(嗎戛唋呢), 시당동(嘶噹東) 두 사람은 그 나라 국왕의 친척이고 일행이 724명인데 그중에 백 명은 북경에 와서 곧 열하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천진에 머물렀다. 공물은 19종을 바쳤는데 제조한 솜씨가 빼어나서 서양인이 미치질 못할 바이다. 9월 초에 천진을 경유해서 수로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생각건대 이는 곧 홍모이(紅毛夷)이니 왜인들이 부르기를 길리시단(吉利是段)이라는 것이다.[28]

위 기록은 뇌자관 洪宅福의 기록을 보고 알게 된 것이다. 현재의 지리 상식으로 보았을 때 영국에 대한 이 기록은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영국이 중국 광동으로 오는 루트를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 더구나 식민지 확장으로 인해 인도를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세계 지리학에 밝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영재가 영국의 조공품의 우수성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으로 서양의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미 이 기록이 있기 전에 북학파의 대다수 지식인들은 연행 시 북경에서 서양 천주교회를 다녀왔고 홍대용과 같은 사람은 서양문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서양 선교사와 직접 접촉을 하고 그들의 과학적인 문물을 자신의 연행록에 상세하게 밝혀 놓았다. 따라서 영재도 분명 이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에 따라 홍모라고 하고 '길리시단'이라고 한 것은 일본에서 얻은 정보를 여기에 첨부했음이 분명하다. 이는 영국에 관한 영재의 유일한 기록이지만, 반면 네덜란드(阿蘭陀)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상세하다.

당시 네덜란드는 해상마차부로 불릴 정도로 해상루트를 통해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해왔고 16-17세기에 아시아의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와 해상무역을 해왔다[29]. 일본은 오랫동안 네덜란드와 무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본을 통해서 네덜란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이 입수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① 『화한삼재도회』에 의하면, 阿蘭陀에서 일본까지의 거리는 해로로 1만 2천 9백 리가 된다 하였다. 상고하건대 홍모국은 서북쪽 극변의 추운나라로서 모두 7대주가 있는데 아란타는 그중 하나로 지금은 7대주의 합친 이름이다. 그 나라

28) 柳得恭, 「英咭唎國」, 『古芸堂筆記』 권5, 이우성 편, 앞의 책, 128-129면. "癸丑赴燕, 賚資官手本曰: '英咭唎國在廣東之南海外, 乾隆二十八季入貢, 今年又入貢. 頭目官嗎戛唋呢, 嘶噹東二人, 係是該國王親戚, 一行共七百二十四人, 其中一百人, 進京仍赴熱河, 余留天津府. 進貢物十九種, 製造奇巧, 西洋人所不及, 九月初由天津水路回國.' 按此卽紅毛夷, 倭呼吉利是段者是也." 인용문의 번역문은 유득공, 앞의 책, 2005, 250면 참고.

29) 이에 관한 정보는 「다큐멘터리 "대국궐기"」, 중국CCTV, 2006 참조.

임금은 고모파이아(古牟波爾亞)라 부른다.30)

② 먼 나라와 교역하며 장사하기를 좋아한다. 그리하여 겹유파(唊留吧)에다 대관(代官)을 두었는데 그곳 나라 이름은 세녜라(世禰羅)라 부른다. 장삿배를 일본 및 여러 나라에 정박시켜 머물면서 통시(通市)하고는 10년에 한 번씩 총수를 감정한다. 그리고 그 차관[주재관]은 해마다 6-7월에 장기(長崎)에 와서 출도(出島)에 임시 머물러 있다가 이듬해 봄에 강호(江戶)에 참석한 다음 주년이 되어 교대할 시기가 되면 6-7월에 온 자와 교체해 가는데 이것은 곧 인질(人質)이다. 그 사람을 가비단(加比丹)이라 부른다. 그 차관은 폐지류(閉止留)라고 부르기도 한다. (…) 대개 아란타의 상선은 35-36개국을 왕래하면서 모든 물품을 교역해오기 때문에 그 이품(異品)과 진기(珍奇)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동경(東京)·만라가(滿剌加)·섬라(暹羅)·겹유파(唊留吧) 등의 사람은 중화인과 같은데도 아란타가 왕래하며 물품을 교역한다. 그리고 소문답라(蘇門答剌)·파우(琶牛)·방갈라(榜葛剌)·파사(波斯)·발리(淳泥) 같은 30여 국에도 아란타 사람이 항상 왕래한다. 대개 그 배는 여덟 개의 돛을 달아 대양(大洋)의 순풍이나 역풍을 모두 관계치 않는다. 또 곤륜층사(崑崙層斯)에 야인들이 있어 그 몸이 흑칠(黑漆)과 같이 검은데, 나라 사람들이 밥을 먹여 유인해다가 상선에 팔아넘겨 노예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육아란타(六阿蘭陀)의 배 안에 타고 온 사람을 보니 몸이 흑칠같이 새까만 사람이 있다. 세속에서 이를 흑방(黑防)이라 부르는데, 몸이 날래서 능히 담장 위로도 달린다. 대개 구리모(久里牟)는 곤륜(崑崙)의 중국 발음이며, 방(防)이란 모발이 없는 사람의 통칭이다.31)

위 인용문은 영재가 『화한삼재도』를 보고 네덜란드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영재가 이덕무의 『蜻蛉國志』 서문을

30) 柳得恭, 「阿蘭陀」, 『古芸堂筆記』 권6, 이우성 편, 앞의 책, 256-257면. "『倭漢三才圖會』. 良安向服撰, 阿蘭陀至日本, 海上一萬二千九百里. 按紅毛國西北之極界寒國也. 凡有七大州, 阿蘭陀其一州, 而今爲總名. 其國主號古牟波爾亞." 인용문의 번역은 丁若鏞, 「柳泠齋得恭筆記評」, 『국역다산시문집』 제22권, 민족문화추진회, 1981, 164면.

31) 柳得恭, 「阿蘭陀」, 『古芸堂筆記』 권6, 이우성 편, 앞의 책, 257-258면. "好同賈交易於遠國, 置代官於唊留吧國, 名稱世禰羅留. 通市舶於日本及諸國, 每十年一度, 爲總計勘定, 其次官者, 每年六七月, 來於長崎, 寓居於出島, 翌年春, 叅於江戶, 勒年始及交代禮, 與六七月來者, 交代去, 乃是人質也. 其人稱加比丹, 其次官號閉止留, 祐次名米世牟, (…) 凡阿蘭陀商舶, 往三十五六箇國, 交易諸品來, 故異品珍器, 不可勝計, 如東京滿剌加, 暹羅唊留吧者, 與中華人同. 阿蘭陀亦往互市焉. 如蘇門答剌, 琶牛, 榜葛剌, 波斯, 淳泥等之諸國, 總三十有餘國, 阿蘭陀人常往來也. 蓋其舶皆八帆, 而不厭大洋順逆風也. 又崑崙層斯有野人, 身如黑漆, 國人鋪食誘之, 賣與番商舶作奴. 按今六阿蘭陀船中所乘來人, 有身如黑漆者, 俗呼曰黑妨, 其人輕捷, 能走於檣上, 蓋久呂牟者, 崑崙之唐音也, 防者無髮人之通稱也." 원문의 번역은 丁若鏞, 앞의 책, 164-165면.

썼음을 미루어볼 때 무관의 『청령국지』를 분명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이덕무의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이덕무의 글을 보기로 하자.

① 아란타(阿蘭陀)는 서북 끝에 있는 가장 추운 나라이며, 홍모국(紅毛國)이라고도 한다. 모두 7대주(大州)가 있고 아란타는 그중의 한 주이었는데, 지금은 총명(總名)이 되었다. 7대주의 이름은 세이라모지(世伊羅牟止)·구류우녜해(具留宇禰解)·우이다량목(宇伊多良木)·계류지우모지(計留止宇牟止)·호우포류이세류(乎宇布留伊世流)·호우포류이세류(乎宇布留伊世流)·포리이세량모지(布利伊須良牟止), 호량모태(乎良牟太)이다. 일본에서 1만 2천 9백 리 떨어져 있다. 그 나라의 임금은 고모파이아(古牟波爾亞)라 부른다. 그 나라 사람들은 살갗이 희고 머리털이 붉고 코가 높고 눈이 둥글며, 늘 개처럼 한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며, 아름답게 꾸민 모직(毛織) 옷을 많이 입는다.

② 먼 나라와 무역하기를 좋아하며, 교류파에 관을 두고 일본과 그 밖의 여러 나라에 상선을 보내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회계(會計)를 한다. 그 차관은 해마다 6-7월에 장기(長崎)에 와서 이듬해 봄에 강호(江戶)에 와서 연시(年始)와 교대(交代)의 예(禮)를 올리고, 다시 6-7월에 오는 사람과 교대하여 가는데, 그 사람을 가비단(加比丹)이라 한다. 글을 가로로 쓰며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낮은 관원이 앞에서 고무하여 권한다. 장수하지 못하여 60세 된 사람이 매우 드물며, 성정이 정교한데 천문·지리·산수와 외치의약(外治醫藥)이 가장 좋다. 상선이 35-36개국에 왕래하므로 진기한 물건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소문답랄(蘇門答剌)·파우(琶牛)·방갈라(榜葛剌)·파사(波斯)·발리(渟泥) 등의 나라에는 아란타만이 왕래할 수 있는데, 대개 그 배들은 다 8개의 돛이 있으므로 순풍과 역풍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의 토산물로는 성성피(猩猩皮)·산호주(珊瑚珠)·마노(瑪瑙)·호박(琥珀)·목내이(木乃伊)·안경(眼鏡)·나경(羅經)[나침판]·토규(土圭)[시계]·성척(星尺)[별을 도수를 측정하는 기계]이 있다.[32]

32) 李德懋, 「異國」, 『青莊館全書』 권65 蜻蛉國志, 韓國文集叢刊 258, 195면. "阿蘭陀, 西北之極界, 最寒國也, 亦曰紅毛. 凡有七大州, 阿蘭陀其一州. 而今爲總名. 曰世伊羅牟止, 曰具留宇禰解, 曰宇伊多良木, 曰計留止宇牟止, 曰乎宇布留伊世流, 曰布利伊須良牟止, 曰乎良牟太. 距日本一萬二千九百裏. 其國主, 號古牟波爾亞, 其國人, 色皙髮紅, 鼻高眼圓. 常擧一腳尿之如犬. 衣多毛織美餙. 好交易於遠圓, 置官於咬吧, 通市舶於日本及諸國. 每十歲一度, 爲總計勘定, 其次官, 每年六七月來長崎, 翌年春, 參於江戶勤年始及交代禮, 復與六七月來者交代去. 其人稱加比丹, 用橫文字. 凡食時, 卑官鼓舞於前以進之. 人不長壽, 六十歲甚稀, 性情巧. 天文、地理、算數, 及外治、醫藥甚良. 商舶往來三十五六箇國, 故珍品異物, 不可勝計, 蘇門答剌、琶牛、榜葛剌、波斯、渟泥等國, 惟阿蘭陀能往來. 蓋其舶, 皆八帆, 不擇逆順風故也. 其土產, 曰猩猩皮、珊瑚珠瑪瑙、琥珀、木乃伊、眼鏡羅經、土圭、星尺."

이상의 두 문장은 영재와 무관의 네덜란드에 관한 기록이다. 모두 네덜란드의 지리적 위치와 풍속, 경제 특징(해양무역 상황), 그리고 발전된 선박의 제도에 대한 기술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사람 모두 일본을 통해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유사한 정보원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서술의 순서나 내용의 일치성으로 보아 영재가 무관의 글을 표본으로 삼아 기록했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하지만 영재의 네덜란드에 대한 인식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 심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항상 기록해 놓았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내용은 『고운당필기』의 「번인조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① 丁巳年(1797) 9월에 홍모번인(红毛番人)들은 동래(東萊)에 와서 정박하였다. 내가 대략 문정관이 썼던 홍모번에 대한 사정을 기록하였다. 이후에 동래부사의 말을 들으니 '그 선제가 개판(蓋板)이 있어 마치 우리나라의 거북선과 같았고, 개판 위로 창문을 내어 출입하도록 되었는데 나사 모양의 사다리를 만들어 빙빙 돌아서 승강하였다. 좌우의 판 안에 여러 개의 방이 배열되어 있고, 그 판을 뚫어 창문을 만들었는데 모두 유리를 붙였으며 배 안을 들여다보니 붉은색의 칠이 황홀하였다. 개·돼지·오리 등의 가축을 기르는 곳도 이상스럽게 정결하였다. 또 한 곳을 보니 장창(長槍) 수백 자루를 쌓아놓았고, 사람마다 조총(鳥銃) 하나씩을 차고 있었다. 그리고 배 위 네 귀퉁이에는 모두 대포를 설치하였으며, 세 개의 돛대를 세웠는데 끊을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어 그 장단(長短)을 마음대로 조절하게 하였다.[33]

② 강남총독(江南總督) 손사의(孫士毅)의 아들 호부주사(戶部主事) 손형(孫衡)이 방문해서 번인의 풍창을 보여주는데 아국의 조창보다 조금 가늘고 길었다. 그 환의 작음이 소합환(藕合丸)과 같았다. 약장을 사용하지 않고, 또 바람구멍이 있어서 구리부채를 사용하는데 그릇으로 뚜껑을 덮은 것과 같다. 기계를 돌림으로써 그것을 쏘는데, 탄환이 빠르게 나가고 울림이 없는데, 백 보 안에서 명중할 수 있다. 손주사의 말에 그 매 사람이 가능한데 학습할 필요가 없고 그대가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마침내 종잇조각에 매화 다섯 바퀴를 그리고 벽에다 걸어 놓

33) 柳得恭, 「番人鳥槍」, 『古芸堂筆記』 권6, 이우성 편, 앞의 책, 206면. "丁巳九月紅毛番人之來泊東萊也, 餘略錄其問情狀本矣. 後聞萊伯之言, 則其船制有蓋板, 如我國龜船, 蓋板上有牖, 可以出入, 作螺螄梯, 回旋升降. 左右版內, 列房纍纍, 穿板爲牕, 悉用琉璃嵌之. 犬豕鵝鴨等豢畜之所, 潔淨異常. 又有一所, 貯長槍累百柄, 人各佩一鳥鎗. 船四隅皆安大砲, 豎三桅, 可斷可續, 長短隨宜."

> 고 시험하였다. 그 중간에 구멍을 뚫고 들어간 것이 수촌이 들어갔으니 대개 또한 병기의 기묘한 것이다. 이르기를 황제가 총독에게 하사한 것이다. 이제야 생각건대 동래바다로 정박해온 번인이 가지고 온 조총이 바로 이것이다. 다시 내백(萊伯)한테 조총의 제조법을 물어보았는데 곧 말하기를 작음이 피리와 같고 불붙이는 곳에 돌이 창작되어 있는데 기계를 쏘면 불이 나오니 제조한 다음 사용해 보니 풍창(風槍)보다도 정묘했다. 그 번인 등은 병기에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34)

①의 내용은 영재가 문정관을 맡은 관원에게 홍모번인이 동래에 정박했을 때 사정을 알아내 적은 글로서 내용은 그들의 선박의 모양과 내부구조, 그리고 배의 무기배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 것이다. 이 기록에서 그들의 배 안에 장창이 수백 자루이고 조창은 한 사람당 하나씩이며 배의 네 귀퉁이에 대포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장사를 즐기는 네덜란드의 상선이 아니라 튼튼히 무장된 군함임을 알 수 있다.

②는 주로 서양 조창제도의 제조 원리와 모양, 작동방법, 총알의 크기, 총기의 위력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다. 서양의 굳센 배와 예리한 무기[堅船利炮]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영재의 국방의식과 海防의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자기 영토를 지켜내야 한다는 국방의식 외에 위기의식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01년 마지막 연행 때 남긴 『연대재유록』에도 청나라 川·楚 사건을 탐지하면서 청나라 해역에 서양비적들이 출몰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35) 이는 영재가 당시 조선 지식인으로서 이미 서양 세력의 위협에 대해 예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중국 청나라가 바로 영재가 돌아온 뒤 불과 40년 만에 서양의 堅船利炮에

---

34) 柳得恭, 「番人鳥槍」, 『古芸堂筆記』 권6, 이우성 편, 앞의 책, 207-208면. "及訪江南總督孫士毅子戶部主事衡, 出示番人風槍, 比我國鳥槍稍細而長, 其丸小如藕合丸, 不用藥裝. 有風門, 用銅扇, 如盂蓋樣者, 斡機以激之, 丸躍出無響, 百步之內, 可以命中. 孫主事言, 此人人可能, 未必學習, 君試見之, 遂以片紙, 書梅花五圈, 糊揭壁上, 以灰中其圈洞, 入數寸, 蓋亦兵器之奇妙者也, 云是皇帝賜總督者. 始意萊海來泊番人所持鳥槍, 卽此物也. 復問其鳥槍之制於萊伯, 則云: "小如鬻篥, 火門裝石, 機發而火出, 造次用之. 又妙於風槍." 伊番等兵器可知其無所不有也."

35) 유득공, 『연대재유록』 四月 十五日. "광동·절강(粵浙) 해변에는 또 양비(洋匪)가 있으니, 절성(浙省)의 정해(定海)·황암(黃巖)·온주(溫州) 세 진(鎭)은 즙보(緝捕)하는 요지인데,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이 시끄러운지 알 수 없다.[粵、浙洋面, 又皆有洋匪, 浙省之定海、黃巖 , 溫州三鎭, 爲緝捕緊要地方, 未知何故致紛紛如此也.]"

의해 남경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도 흔들리게 된 사실은 영재의 위기의식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준다.

3) 영재의 해양인식

조선조 이래 한반도는 海禁정책과 空島조치로 인해 해양에 대한 인식이 많은 한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이런 海禁정책과 空島조치는 조선반도의 해양산업의 발전에 큰 저애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영토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국이기에 섬과 해역이 국방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과 동시에 방어에 큰 어려움도 가져다준다. 따라서 이들을 철저하게 지켜내자면 위정자들이 철저한 국방의식과 고도의 경각성을 요하고 해안과 도서들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사시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재는 『발해고』와 『이십일도회고시』를 저술한 만큼 당시 조선의 제일가는 역사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재는 자국의 역사와 각 조대별 강역 그리고 국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인식은 자연히 영재의 국방의식과도 연결된다. 이 점은 조선의 국가안보와 국방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서책들을 일본에 함부로 유출시키는 데 대한 영재의 혹독한 비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 우리나라 책이 일본에 전해 진 것 또한 많다. 무진년(1748) 통신사가 갔을 때 여러 서기들이 일본 학자들과 필담을 하였는데, 기국서(紀國瑞)라는 자가 말하기를 "『고려사(高麗史)』(…) 보았다"라고 했다. 다른 책이 일본에 유포되는 것은 그다지 관계없지만 『병학지남(兵學指南)』과 『징비록(懲毖錄)』과 같은 서적은 비밀로 취급해야 할 책인데, 어떤 간사한 자가 왜관에다 몰래 팔았을까? 일본은 일찍이 『지봉유설(芝峯類說)』 중에 실린 말을 인용하여 울릉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 적이 있었으니 이 일 또한 경계가 될 만하다.[36]

---

36) 柳得恭, 「我書傳於倭」, 『古芸堂筆記』 권5, 이우성 편, 앞의 책, 125-126면. "我書之傳於倭中者亦多, 戊申通信時, 諸書記與倭儒筆談, 有紀國瑞者云: '見「高麗史」、「輿地勝覽」、「攷事撮要」、「兵學指南」、「懲毖錄」、「皇華集」、「保閑齋集」、「退溪集」、「栗谷集」.' 又有上月信敬者云: '見陽村「入學圖說」、晦齋「九經衍義」、退溪「聖

위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조선의 많은 서적들이 일본에 수출되었던 것이다. 그 서적들 중에 『병학지남(兵學指南)』과 『징비록(懲毖錄)』 같은 책도 들어있었던 것이다. 영재가 보기에 이 책들은 국가 안보에 직관된 도서로서 국가기밀 유출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넘긴 자들을 "간사한 자"라고 혹독하게 꾸짖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동해의 울릉도를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부터 일본이 이 섬을 영토 분쟁화하려고 한다는 위기의식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계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은 근대의 海島, 海域, 海權에 관한 인식과도 많은 면에서 일치한 것이며 이를 통해 영재가 근대적 해양인식과 흡사한 해양인식의 소유자임을 말해준다. 이밖에도 영재의 『고운당필기』에 「西海諸島」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도 자국의 바다 섬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 계축년(정조 17년, 1793) 2월 20일 빈대(賓對)에서 어떤 비당(備堂)이 아뢰기를 "서북쪽의 폐사군(廢四郡) 지역인 옛 후주(厚州) 서남쪽의 많은 섬은 애초 야인들이 들어와서 산다거나 해적이 침입해 오는 것 때문에 그 땅을 버려두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이 없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백성들의 경작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고려 때 조운흘(趙云仡)은 '대청도와 소청도 등의 섬은 모두 비옥한 토양에 물고기와 소금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고, 이전의 相臣 柳成龍은 '身彌島 등의 섬은 지세가 광활하니 마땅히 둔전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어찌 견해가 없이 그렇게 말하였겠습니까? 근래 인구는 늘었지만 경작할 만한 토지는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長淵의 대청·소청도를 本道의 水使로 하여금 가까운 비장을 파견하여 살펴 조사하게 하고, 宣川의 身彌島와 鐵山의 大加次里島와 椵島를 선천부사로 하여금 직접 살펴 조사하게 하여 모두 지형을 지도로 작성하여 아뢰게 하여 조정의 의론에 붙여 처결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
> 이때 直閣 徐公도 『四郡考』를 찬술하여 『唐志』를 인용하여 사군을 渤海의 神州로 추정하였으니, 이전 사람이 밝히지 못한 점을 밝혀내었다고 이를 만하다. 무릇 우리나라 지형은 동북쪽은 두만강이고 서북쪽은 압록강이며 동, 서, 남 삼면

學十圖」、「啓蒙傳疑」、「朱書節要」、「天命圖」、「自省錄」、栗谷「聖學輯要」、「擊蒙要訣」、「啓蒙補要解」. 他書之流布倭中, 無甚關係, 至如「兵學指南」、「懲毖錄」乃是密書, 未知何許姦人, 潛賣於倭館? 倭曾引『芝峯類說』中語, 妄認鬱陵島, 此事亦足鑑戒." 번역문은 유득공, 앞의 책, 2005, 45-46면 참고.

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이른바 2강 3해(二江三海)다. 그 안쪽은 한 자 한 치라도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37)

인용문의 전 단락에서 조선 서해바다 폐사군 후주의 서남쪽에 있는 여러 섬들이 해금과 공도조치로 인해 오랫동안 무인도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비워둔 이 섬들은 사실 토지가 비옥하여 예로부터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고 소금과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점을 굳이 기록해 두었다는 것은 영재가 이 섬들과 바다를 중요한 국가영토와 해양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 부분에 조선의 지형은 북쪽에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고 "동, 서, 남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이른바 2강 3해다. 그 안쪽은 한 자 한 치라도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다. 이는 영재가 자국의 영역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않는 확고한 국토의식과 국방의식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재 개인의 인식만이 아니라 북학파 지식인을 비롯한 18세기 지적인 조선 지식인들의 해양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유득공의 저서에 나타난 해양국가와 자국의 해역과 바다 섬에 관한 기록을 통해 영재 유득공의 해양국가와 해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영재 유득공은 18세기 조선의 훌륭한 선비로서 개방된 시야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구를 넘어 서양의 해양국가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폭을 넓혔다. 그리하여 영재는 그들에 대한 지리, 풍속, 물산은 물론, 학예의 수준과 학문적 경향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비록 서양 해양국가에 대해서는 정보와

37) 柳得恭, 「西海諸島」, 『古芸堂筆記』 권4, 이우성 편, 앞의 책, 223-224면. "癸醜二月二十日賓對, 有一備堂啓曰: '西北廢四郡古厚州西南之許多海島, 初或因野人之入居, 海賊之來侵, 而棄其地, 今無是患者數百年, 猶不昨民耕, 甚爲無義. 高麗趙雲仡以爲: 「大青小青等島, 皆沃壤, 有魚鹽之利」, 故相臣柳成龍以爲: 「身彌等島, 地勢廣闊, 宜屯田」, 此豈無所見而然哉? 近來人民繁息, 無地可耕, 臣意 ,則長淵之大. 小青島, 使本道水使, 遣親裨看審, 宣川之身彌島、鐵山之大加次裏島. 椵島, 使宣川府使, 親爲看審, 並圖形狀聞, 以爲議處'. 上許之. 是時直閣徐公, 亦撰「四郡考」, 引唐志, 定爲渤海之神州, 可謂發前人之所未發. 大抵我東地形, 東北則豆滿, 西北則鴨綠, 東西南三面環海, 是謂二江三海, 其以內, 尺寸不可棄也."

언어의 장애로 객관적인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하나 그 당시 제약된 조건에서 최대한 정보력을 동원해 요해하려고 노력한 자취가 그가 남긴 글들에서 역력히 보인다. 특히 서양 해양국가 영국과 네덜란드에 대해 정보가 닫는 데까지 노력하여 파악하였고, 특히 서양의 견고한 선박과 무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서양 해양세력이 동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재 유득공은 또한 자국의 海洋 島嶼들에 대해 모두 풍부한 물산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국가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나라와 백성들에게 부를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의 영토가 삼면이 바다에 싸여 있는 반도인 만큼 국방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국의 국경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는 철저한 국방의식의 소유자이다. 영재의 이런 해양인식을 통해 18세기 조선의 북학파 지식인을 비롯한 현명한 선비들의 고매한 풍모를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유득공, 『고운당필기』, 이우성 편, 栖碧外史海外蒐佚本 10, 아세아문화사, 1986.
_____, 송기호 옮김, 『유득공과 발해고』, 홍익출판사, 1998.
_____, 김윤조 역, 『(태학산문선 112) 누가 알아주랴』, 태학사, 2005.
_____,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 『熱河紀行詩注』, 실시학시고전문학연구회, 2010.
이덕무, 『청장관전서』, 韓國文集叢刊 258.

강동엽, 「중국의 문학과 인접국과의 교류 양상」, 『조선시대의 동아시아 문화와 문학』, 복스힐, 2006.
권순철, 「영재 유득공의 연행과 문물교류」,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1.
김영진, 「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年譜」, 『문헌과 해석』 제29호, 문헌과 해석사, 2004, 215-246면.
김용태, 「1790년 유득공이 만난 동아시아—〈열하기행시주〉 분석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145-172면.
김윤조, 『유득공: 실학의 학풍을 꽃 피운 전문적 저술가』, 민속원, 2013.
_____, 「고운당필기연구—제 이본에 대한 검토」, 『대동한문학』 제26집, 대동한문학회, 2007, 375-408면.
박인호, 「발해고에 나타난 유득공의 역사지리인식」, 『韓國史學史學報』 제6집, 한국사학사학회, 2002, 35-61면.
박현규, 「조선 朴齊家柳得恭과 청 화가 羅聘의 畵緣」, 『한국학논집』 제50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69-96면.
박희병, 「조선의 일본학 성립—원중거와 이덕무」, 『한국문화』 제6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179-219면.
송준호,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 연구」, 『동악어문학』 제12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980, 11-73면.
_____, 『유득공의 시문학 연구』, 태학사, 1985.
이경수, 「영재 유득공의 시의 신운풍과 고증학적 경향」, 『대동한문학』 제27집, 대동한문학회, 2007, 157-185면.
임형택, 「실학자들의 일본관과 실학」,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비, 2000.
장종미, 「영재 유득공의 세계인식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17.
하우봉, 「이덕무의 『청령국지』에 대하여」, 『전북사학』 제9집, 전북대 사학회, 1985, 149-181면.
_____, 『조선시대 해양국가와의 교류사』, 경인문화사, 2008.

김윤조, 「경도잡지 해제(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V.0000.0000-20090716.AS_SA_478(2019.06.30 검색).

【Abstract】

Study on YoungJae Lyu, Dug-gong's Understanding of the Ocean (Ocean Countries)

Ren, Ming-Jie*

This thesis observed the Joseon intellectuals's understanding of the ocean and ocean countries by studying on YoungJae Lyu, Dug-gong (1748-1807)'s understanding.

As an important intellectual of Bukhak school in 18th century, Lyu, Dug-gong mainly expressed his understanding of the ocean and ocean countries not only in his Yeonhaengrok, Yeolha Travel Poetry Note (1790) and Youn Dae Jae You Log (1801), but also in his anthology, Goundang Pilgi and Selected Work of YoungJae. He had a broad perspective on Japan, Ryukyu and also western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Netherlands. The records reflecting the modern understanding of the ocean, which includes the islands and coastal areas around his own country, can be found in his works.

Lyu, Dug-gong, as a great Joseon scholar of the 18th century, had a wide interest in the geography, customs, products, academic and artistic levels and trends of not only Japan and Ryukyu, but also the western ocean countries. Of course, the understanding of academia and art of western ocean states is poor due to information and language limitations. Nevertheless, the traces of his efforts to understand them with the greatest amount of knowledge can be found in his writings. Especially, he made great efforts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western oce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For example, he particularly recorded the strong and solid ships and weapons in details. The sense of crisis that Western maritime forces could threaten East Asia is clear here.

Keywords: Lyu Dug-gong, Bukhak school, Yeonhaengrok, Understanding of the Ocean.

접수일: 2019.06.30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16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Ocean University of China.